

‘리그 최고’ 네일 전제...“KIA에게 내일이 있다”



KIA 에이스 네일 <KIA 타이거즈 제공>

롯데戰 60닝 퍼펙트...51일 만의 ‘승리投’

‘위기관리+제구+구종’ 진가 증명...퀄리티스타트 공동 1위
WPA 2.91·WAR 5.50 리그상위권, 슬라이더 구종 가치 ‘뚝’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발 제임스 네일이 리그 최고의 에이스다운 피칭으로 후반기 첫 승을 신고했다.

네일은 지난 5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2피안타 3사자구 8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6승째 (2패)로, 지난 6월15일 NC전 이후 51일 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6경기 만에 거둔 값진 승리였다.

이로써 퀄리티스타트는 16경기로 늘어나며, 삼성 후라도와 함께 리그 공동 1위에 올랐다.

평균자책점도 2.38로 낮추며, 한화 폰세 (2.24)에 이어 리그 2위를 지켰다.

총 투구 수는 94개.

이 중 스트라이크는 62개 (66%)로, 안정적인 제구가 돋보였다. 최고 152km의 투심과 함께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터 등 다양한 구종이 조화를

이루며 롯데 타선을 묶었다.

경기 초반 위기도 있었다. 1회말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1사 만루에 몰렸지만, 삼진과 땅볼로 실점 없이 넘겼다. 이후 2-4회는 모두 삼자범퇴로 처리하며 흐름을 잡았다. 수비 실책으로 시작된 5회도 흔들림 없이 막았고, 6회 무사 1-2루 위기에서는 병살타와 외야 플라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임무를 마친 네일은 7회부터 성영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KIA는 7회초 김태균의 2타점 적시타로 앞서 나갔고, 끝까지 리드를 지키며 승리를 가져왔다.

이 승리로 3연승을 달린 KIA는 지난달 23일 이후 13일 만에 4위 자리를 되찾았다. 3위 롯데와의 승차도 5경기로 줄이며, 상위권 추격의 불씨를 다시 지켰다.

무엇보다 이날 네일의 투구는 리그 팀 타율 1위 롯데를 상대로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무대였다.

특히 8월 원정 12연전의 첫 단추를 완벽하게

깨면서, 그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됐다.

지난해 통합 우승의 주역이자 에이스인 네일은 올 시즌 21경기에서 128%이닝을 소화하며, 팀 마운드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세부 지표에서도 평균자책점 2점대 초반, 피안타율 0.219, WHIP 1.07을 기록 중이며, 여전히 리그 정상급 기량을 증명하고 있다.

숫자로도 그의 진가는 충분히 입증된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나타내는 WAR (5.50)은 리그 선발투수 중 2위다.

외국인 투수 기준으로는 한화 폰세 (7.12)에 이어 단연 최고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오래 던지고 잘 던졌다는 것을 넘어,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발 자원’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경기당 실제 승리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나타내는 WPA (승리 확률 기여도)도 2.91로 전체 2위. 다시 말해, 네일이 등판하는 날 KIA는 언제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팀이 된다.

게다가 그의 주무기인 슬라이더 (변형 슬라이더)는 구종 가치 (26.1)가 리그 1위다.

그만큼 공 하나만으로도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투수라는 뜻이다.

네일은 오는 1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NC전에 등판해 시즌 7승째에 도전한다.

/주홍철 기자

광주시청 고승환, 코사노프기념 세계컨티넨탈투어 금

남자 200m 우승...도쿄行 랭킹포인트 기록, 인도대회서 추가 포인트 기대

광주시청 고승환이 제34회 코사노프기념 세계컨티넨탈투어 브론즈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고승환은 지난 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대회 남자 200m에서 20초90을 기록, 일본 유다이 니쉬 (21초09), 카자흐스탄 바이탈 켄스 (21초24)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날 비와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한국신기록 (20초40)이나 지난 6월 기록한 자신의 개인 최고기록 (20초45)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랭킹포인트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2025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0m 기준기록은 20초16이며, 고승환은 랭킹순위를 통해 출전권을 노리고 있다. 남자 200m는 48명이 참가한다.

지난달 랭킹순위 40위권 초반대였던 고승환은 현재 48위로 내려갔으며 랭킹 순위를 올리기 위해 포인트가 주어지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랭킹포인트 1천200점대가 돼야 도쿄행을 위한 안정적인 순위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환은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7일 인도로 출국한다.

오는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세계육상연맹 (WA)이 인증한 대회에서 기준기록을 충족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랭킹포인트를 쌓아야 한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카자흐스탄 대회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아 기록을 단축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도 우승을 하면서 랭킹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대회에서 다시한번 기록에 도전하고 안정적인 랭킹포인트를 만들어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KIA 타이거즈, 쿠로미 유니폼 입는다

어센틱 유니폼 등 16종 상품 출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쿠로미’와 만난다.

지난 5월 ‘캐치! 티니핑’과의 협업으로 큰 호응을 얻은 KIA는, 컬래버레이션 2탄으로 ‘쿠로미’와의 협업을 준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컬래버는 산리오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어센틱 유니폼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어센틱 유니폼과 레플리카 유니폼 2종 등 총 3종의 유니폼을 비롯해 봉제 키링, 워밍 파우치, 매탈 머리핀, 만다나 등 총 16종의 상품이 팬들을 찾아간다.

선수단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키움과의 홈 3연전에서 쿠로미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다.

쿠로미 유니폼은 ‘챌린저에 놀러온 쿠로미가 하랑이와 함께 타이거즈를 응원한다’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쿠로미의 상징 색인 검정색과 보라색으로 유니폼을 배색해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타이거즈 워드마크는 쿠로미의 매력 포인트



쿠로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전상현, 김선진, 김태균 <KIA 타이거즈 제공>

트인 귀와 화살표 모양 꼬리를 적용해 디자인했다.

쿠로미 어센틱 유니폼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팀스토어를 통해 판매되며, 레플리카 유니폼 2종과 그 외 MD 상품은 19일부터 온·오프라인 팀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 정보와 판매 일정은 팀스토어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영광서 ‘웨스트오션CC 챔피언스투어’ 열린다

웨스트오션CC·SBS골프 공동 주최
9월 두차례 개최, 총상금 1억4천만원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이현경)과 SBS골프 (대표이사 이상근)가 공동 주최하는 ‘KLPGA 2025 웨스트오션CC 챔피언스투어’가 전남 영광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에서 챔피언스투어 6차전, 7차전 총 2개 대회로 펼쳐진다.

각 대회당 총상금은 7천만 원으로 6차전은 9월22-23일 개최되고, 7차전은 9월29-30일까지 펼쳐진다.

두 대회 모두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되며, 챔피언스투어의 중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현경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 대표는 “탁트인 서해의 풍경을 품은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에서 KLPGA 챔피언스투어를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가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무대가 되고, 팬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근 SBS골프 대표는 “챔피언스투어는 한국 여자 골프의 역사를 함께 써온 주역들이

KLPGA 2025 웨스트오션CC 챔피언스투어



이상근 SBS골프 대표, 이현경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 대표, 김순희 KLPGA 수석부회장(왼쪽부터)이 조인식을 마친 뒤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KLPGA 제공>

다시 한번 경쟁의 열기를 나누는 무대”라며 “오랜 시간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또 다른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SBS골프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의 무대가 될 웨스트오션 컨트리클럽은 2008년 개장한 서해 바다와 구수

산의 수려한 경관을 품은 자연 친화적 골프장이다.

도전적이면서도 전략적인 18홀 코스 설계를 바탕으로 한국 10대 퍼블릭 골프장 (18홀)에 선정됐으며, 탁트인 바다 전망과 리조트형 시설까지 갖춰 많은 골프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청 전용태·성진수·윤상민 대한체육회장배 근대5종 릴레이 金

근대5종 간판 스타 전용태가 또 하나의 ‘금빛 날보’를 전했다.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태는 6일 강원 인제에서 열린 제3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남자일반부 릴레이 결승에서 성진수·윤상민과 호흡을 맞춰 총 1천72점을 획득, 경기도점 (1천66점)과 인천시체육회 (1천30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합작했다.

광주시청은 펜싱랭킹라운드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35등으로 전체 1위 (235점), 수영 4위 (298점)를 기록했다.

마지막 경기로 진행된 레이저런 (사격+육상복합)에서 선두로 출발한 광주시청은 무난하게 1위로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합작했다.

광주시청 근대5종팀은 앞서 지난 4일 윤상민·성진수·방준서가 팀을 이룬 남자일반부 4종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이날 금메달을 추가하며 금메달1개, 은메달 1개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전용태는 지난 6월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청 성진수(왼쪽부터)와 전용태, 윤상민이 6일 열린 제3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남자일반부 릴레이 결승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근대5종연맹 제공>

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개인전 금메달, 7월 제12회 한국실업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박희중 기자